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음 4월 7일)

제17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촛불대선** D-5

정당별 후보 측, 지지층 투표율 끌어올리기 돌입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4~5일 이틀간 진행되면서 각 후보 진영마다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표심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대선부터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뒤 선거당일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기호를 손가락 등으로 표시하는 등의 투표 인증샷을 올릴 수 있어 막판 관세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각 당 대선 후보 선대위는 4~5일 치러지는 사전투표에서부터 미리 지지표를 붙여 놓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투표를 독려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먼저투표위' 구성  
사전투표율 25%가 목표

국민의당, 'V3' 캠페인  
지지층 동참 이끌어내기로

도선관위·지역 정가도  
투표율 올리기 안간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먼저투표위원회'를 구성해 사전투표율을 역대 최대치인 2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사전투표 독려 전화와 메시지를 발송하는 '투대문'(투표해야 대통령 문재인) 앱을 만들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안 후보가 개발한 백신 프로그램의 이름을 딴 'V3' 캠페인을 벌인다. V3는 '투표한 뒤(Vote) 휴가 가고(Vacation) 승리하자(Victory)'의 줄임말이다. 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SNS에 공유하며 안 후보를 지지하는 유명인사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면 추첨이나 선착순을 통해 500명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자체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물 제작을 통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동시에 호소할 예정이다.

비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에서도 인증샷 캠페인을 전면내 내세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지도부 전원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선관위와 지역 정치권도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6회 지방선거 이후 익산시장 재선거와 도의원 보선, 20대 총선 등 6개 선거에서 전북지역 사전투표율은 16~17%를 기록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북지역은 지난 선거보다 높은 20~24%의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투표율이 올라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당에서 유력리 셈법 계산에 분주하다.

전북지역에서 지지를 선두를 지키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5월 황금연휴가 주요 지지층인 20~40대 투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실상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김춘진 상임선대위원장은 "19대 대선은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라며 "사전투표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전북선대위는 안철수 후보의 선호도가 높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50~60대 이상 고령층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자 투표가 높을 것으로 본다"며 "수면 아래 있던 '사이 안철수'의 표심에도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북선대위도 보수층이 움직이고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전통적인 보수층을 상대로 사전투표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선대위 관계자는 "호남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층의 결집과 사전투표율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주역인 청년층 참여가 높을 것이고, 20대 지지율에서 문 후보와 양강구도인 심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대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 직후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 지지 호소하거나 투표표를 독려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층 표심의 향방을 가르는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재용 기자



"이건 사진으로 남겨야" 3일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전 김제시 금산사에서 불국법요식이 열린 가운데 한 신자가 소원을 담은 연등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

###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가치조사 추진

전북도와 군산시가 고군산군도의 독특한 자원을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가치 조사를 한다.

지난 2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지로 선유도·신시도·말도 등은 지질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말도에 드러난 습곡구조는 천연기념물 제501호로 지정되는 등 지질·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은 지질자원이다.

시 환경정책과 박해규 계장은 "고군산군도가 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될 경우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탐방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질공원 브랜드 활용을 통한 지역 특산물 판매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질명소 발굴 및 정밀 조사 등이 철저히 진행될 예정"고 설명했다. /군산=정현 기자

매일 INDEX  
3면 - 안철수, 전북 지지 유세

### 전주동물원 쌍둥이 시베리아호랑이

## 천둥·번개, 내일 대공개

어린이날 맞아 시민들에게... 설명판도 게시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명물이 될 쌍둥이 시베리아호랑이가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전주동물원(원장 조동주)은 지난해 6월 28일 태어나 10개월 동안 전담 사육사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적응기간을 거친 쌍둥이 시베리아호랑이 천둥(수컷)과 번개(수컷)를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공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어린이날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인 시베리아호랑이 쌍둥이가 어미와 함께 즐겁게 뛰놀고 장난하며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동물원의 새 식구인 쌍둥이 시베리아호랑이는 지난해 출산 100일을 기념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한 결과 각각 천둥과 번개라는 이름

이 붙여졌으며, 동물원 내 새로운 호랑이사에서 어미와 좋은 유대 관계를 쌓아가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방사장 적응훈련에도 순조롭게 적응한 상태이다.

시는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아기호랑이의 탄생과 이름 등을 적게 설명판도 호랑이 앞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 농산물 마케팅 광역화 추진

도, 브랜드 통합·전문조직 활성화 TF 운영

전북도는 농산물 마케팅을 시·군, 품목간의 연합을 통한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다품목 소량 생산, 개별 유통구조를 통합해 농산물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유통시장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을 위해 2012~2018년까지 총사업비 328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전국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우수모델로 성장했다.

지난해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실적은 전년대비 112.8% 성장한 총 3184억원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물량 확보 및 마케팅 전문능력 강화를 통해 연중 사업성과를 창출했다.

전북도는 시·군 통합마케팅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군, 품목간의 연합을 통한 도 광역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성과확산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농산물 광역화는 규모화를 지향하

는 농산물 유통시장의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시·군, 품목간의 인위적 통합이 아닌, 자연발생적, 마케팅 조직의 선택에 의해 추진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필요한 일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 광역화를 견고히 하는 등 장기적으로 농산물 브랜드의 통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사업 시행주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도내 농산물 광역화 및 선택과 집중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TF는 행정, 농협, 조공법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시·군, 품목간 연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 및 참여농가 소득보전 체계 강화 방안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선택과 집중 지원방식, 도 광역 브랜드(예담채) 활성화 및 연합사업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5일 어린이날 연휴로 5일부터 7일까지 신문 쉽니다.

진안고원의 **진안 홍삼**

**이래서 다릅니다**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진안삼 사용!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7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